

농정뉴스



포도밭 만 3천 7백 ha 조성

가공공장 설립 기술도입등 추진

농수산부는 올해부터 오는 93년까지 1천5백34억원을 들여 포도주용 포도원 1만3천7백63ha를 새로 조성하고 포도주산단지 5개의 포도주 가공공장을 신설키로 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88올림픽과 점차 늘어나는 국민 수요에 대비 포도주개발에 본격 나서기로 한 것인데 올해 4백ha, 86·87년에 각 1천4백ha, 88~93년에 1만5백63ha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또 포도산지는 주로 산지를 개간하여 대규모 포도밭을 조성하고 포도주용 품종은 현재 국내에서 보급중인 리스링등 7개 품종 외에 프랑스 美國 日本 등지에서 25

개 품종을 새로 도입, 국내기후와 토양조건에 적합한 우량품종을 선별 보급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이밖에도 포도주 가공 기술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의 해외 연수와 외국인 전문가 초청 및 선진 외국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과실주단지조성에 참가하는 자와 대단위 과수단지 조성자에게는 과실주 주조신규 면허를 줄 수 있도록 했다.

84년말 현재 전국의 포도재배 면적은 1만5천5백ha로 지난 한해동안 12만4천톤의 포도를 생산했으며 포도주 소비량은 지난해 2천2백90kl로 1인당 0.06l였다.

자력조성 草地 무제한 허용

올해 7천정보 계획

농수산부는 11일 소사육기반을 확

충하고 국토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력으로 초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을 두지않고 모두

허용해 주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올해 보조금 19억2백만원, 융자금 48억9천6백만원, 自費 부담금 16억3천2백만원등 모두 84억원의 사업비로 7천정보의 초지를 새로 조성할 계획인데 일체의 정부지원 없이 자력으로 초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초지조성계획면적에 제한없이 허가해 주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그러나 초지조성을 방지하여 토지투기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초지조성 허가권자인 도지사로 하여금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했으며 고속도로변과 그린벨트 내의 개발은 작도에 3개소 이내에서 시범초지개발에 대해서만 허가해 주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또 초지조성후도 시계획구역이나 공장지대등 다른 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역은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올해 농수산부가 새로 조성할 작도별 초지조성면적은 다음과 같다.

▲京畿=2백50정보 ▲江原=1천5백정보 ▲忠北=1천1백정보 ▲忠南=5백정보 ▲全北=6백정보 ▲全南=9백50정보 ▲慶北=6백50정보 ▲慶南=5백정보 ▲濟州=9백50정보

과수 재배면적 늘려

배, 감귤등 수종 갱신추진

농수산부는 올해 93억1천만원을 지원, 1백41만5천4백t의 과실을 생산 하기로 했다.

농수산부의 올해 과실생산 계획에 따르면 모두 10만9천50ha에서 ▲사과 53만7천t ▲배 10만1천3백t ▲복숭아 10만8천9백t ▲포도 14만4백t ▲단감 7만8백t ▲감귤 37만3천1백t 및 그밖의 과실 8만3천9백t을 생산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수급충당이 가능한 사과·배·감귤은 새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우량 신품종으로 바꾸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가공원료용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도·복숭아·유자 및 매실등은 재배면적을 확대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국광·홍옥(사과)·만삼길(배)·유월도(복숭아)·캠벌얼리(포도) 등을 우량품종으로 바꾸는 동시 신규조원 또는 다시 심을 때는 지역별, 익는 시기별로 특성이 다른 우량품종을 심어 값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했다.